

『老乞大』刊本들을 통해 본 14~18세기의 복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1)

- 服飾類를 中心으로 -

서정원 · 홍나영*

고려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본 연구는 14세기에 처음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어 18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된 『노걸대』의 여러 편찬본에서 나타나는 복식 관련 용어들을 정리·비교하고, 중국대륙과 우리 나라에서 보여지는 복식 문화의 일면을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노걸대』 9종류 중 6종류(『原刊』『노걸대』, 『刪改』『노걸대』, 『翻譯』『노걸대』 上·下, 『老乞大諺解』 上·下, 『老乞大新釋』, 『重刊老乞大諺解』 上·下)를 대상으로 하여 복식과 관련된 용어를 뽑아 복식명칭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어문의 변화 양상에 따라 (원간) 『노걸대』, (산개) 『노걸대』~『노걸대언해』, 『노걸대신석』~『중간노걸대언해』로 분류하고 표를 구성하여 간본간의 명칭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노걸대』에는 冠帽, 衣, 帶, 신발 등의 복식류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계절에 따른 복식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복식의 변화도 볼 수 있다.

관모의 笠飾으로는 ‘頂子’, ‘紅纓’ 등의 명칭들이 나타난다. 특히 ‘상모’로 이해되는 ‘紅纓’은 조선시대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간) 『노걸대』에서 고려 상인이 본국으로 사가는 잡화물품 목록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서 고려시대에 이미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笠纓으로 구슬을 사용하는 것은 원나라와 고려에서 유행하던 풍속으로 보인다. 『노걸대』에 사용되어진 ‘帽子’는 소재나 형태와 관계없이 대부분 ‘갓’으로 이해되고 있다. ‘갓’이라는 용어가 특정 모자의 명칭이 아니라 모자류를 통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간) 『노걸대』에서는 후대에 편찬된 『노걸대』 간본들보다 ‘油單罽罽’, ‘副圓梭帽兒’, ‘單桃牛尾笠子’, ‘靑氈鉢笠兒’, ‘笠子’ 등의 여러 명칭들

이 나타나며, ‘뽕뽕’ 등의 몽골어의 차용어도 나타난다.

『노걸대』의 시대별 간본의 변화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복명칭으로는 ‘襖子’, ‘直身’, ‘布衫’, ‘汗衫’, ‘袴兒’ 등이 있다. 간본별로는 (원간) 『노걸대』에서는 ‘披氈氈衫’, ‘腰線襖子’, ‘搭搭五兒’, ‘衫兒’, ‘雲肩搭胡’, ‘開襟襖子’, (산개) 『노걸대』~『노걸대언해』에서는 ‘曳撒(衣撒)’, 『노걸대신석』~『중간노걸대언해』에서는 ‘袍子’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노걸대신석』~『중간노걸대언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박통사신석언해』(1765)에서는 ‘帖裏’, ‘曳撒(衣撒)’, ‘搭胡’의 명칭을 찾아 볼 수 없다. 대신 ‘細褶單袍子’, ‘袍子’ 등의 명칭이 ‘ㄴ’ 주름 홑두루막’, ‘두루막이’로 연해되어 나타난다. 이렇듯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복식명칭들은 각 시기에 대표적인 의복을 뜻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繫腰는 帶를 나타내며, 靴는 소재와 신발 장식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裙刀子(裙上帶的小刀子) 등은 (원간) 『노걸대』에서부터 그 기록이 나타나 있어 몽골풍과도 관련있는 품목으로 사료된다.

『노걸대』가 편찬된 기간은 중국 대륙 내에서 몽골족, 漢族, 滿洲族에 의해 왕조의 교체가 3번이나 이루어진 기간이다. 『노걸대』의 한어의 현격한 수량양상이 3번 나타나는 것 또한 이러한 왕조교체에 따른 어휘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노걸대』가 한어 구어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화서이므로 중국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복식과 관련된 많은 명칭이 기록되어 있어서 한·중 교류사와 병행 연구를 한다면 여러 복식 명칭의 유래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노걸대』에 나타난 복식 소재의 명칭에 대한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